

플라스틱 경기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전경련, 내수·수출에 내산성 호조 전환 ... 3월 전체 BSI 119.2 달해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Business Survey Index)는 119.2로 기준치 100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대폭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04년 6월 이후 10개월만에 기준선 100을 상회해 장기간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월 실적BSI는 87.2로 1월에 이어 경기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공업 BSI(113.6)는 의복 및 가죽·신발(110.5), 음식료(115.6), 고무 및 플라스틱(133.3) 등 대부분 업종이 호전을, 중화학공업(122.4) 또한 일차금속(116.1), 제약 및 화학제품(118.4), 자동차 및 트레일러(122.7), 비금속광물(123.1) 등을 중심으로 호전을 전망했다.

비제조업(117.1)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106.0), 건설(115.1)을 중심으로 호전을 전망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은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13.9), 통신 및 정보처리(125.0), 반도체, 컴퓨터 및 전기(133.3) 등 전업종에서 호전을 전망했다.

내수(123.4)는 펄프 및 종이(144.4), 비금속광물(146.2), 나무 및 목재(150.0) 등을 중심으로 호전, 도매 및 상품중개업(100.0), 전력 및 가스(100.0) 등을 중심으로 1월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111.7)은 반도체, 컴퓨터 및 전기(122.2), 고무 및 플라스틱(122.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33.3) 등을 중심으로 호전을, 투자(108.6)는 고무 및 플라스틱(122.2), 전력 및 가스(136.4), 선박, 철도, 항공기(142.9) 등을 중심으로 호전을 전망했다.

또 고용(104.0)은 섬유(84.6) 부진과 반도체, 컴퓨터 및 전기(111.1), 건설(111.3) 등의 호전이 혼재했고, 채산성(113.2)은 고무 및 플라스틱(144.4), 운수(150.0) 등을 중심으로 호전을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5/03/04>